광산지역의 환경과 청소년의 생활모습*

이 종 각**

- I. 서 론
- II. 청소년의 생활 공간
- III. 청소년의 일상생활 및 사회화 과정
- IV. 청소년 현상의 특징
- V. 종합 및 제안

I. 서 론

우리나라에서 광산지역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사회화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고는 광산지역의 (1) 시간적, 공간적,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청소년들의 생활을 기술하고, (2) 그들의 생활 속에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려고 한다. 광산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의 특징을 밝히고 청소년들의 의식(의미부여)을 보존하면서 기록해 두기 위하여 가급적 주민과 청소년들의 표현방식과 반응을 살리면서 진술한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은 한 집단이 가진

삶의 의미를 국외자로서 부분적인 자료수집을 통하여 규정하려는 어려움과 위험성에 있다. 사실 이곳에 직장관계로 장기간 거주하더라도 교사, 은행원, 공무원 등의 화이트 칼라는 대부분 수년간 이방인으로 근무하다가 이곳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는 본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 노력은 다음의 더 충실한 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청소년의 생활공간

광산지역 청소년 생활공간을 지역사회 생활공간, 가정생활공간, 학교생활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무연탄 광산지역은 1960년대 중반이후 개발이 촉진되어 광산마을이 급격히 형성된 지역으로서, 지역의 경제적 기반은 무연탄 생산에만

*본고는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 연구> (황정규 외, 19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중 별차가 많은 광산지역의 청소년에 관한 연구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산지역 중의 하나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과 고한읍 지역에서 두차례의 현지답사와 40여명과의 형식적·비형식적 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의 보고서이다. 본 연구의 대상집단은 12, 3세~18, 9세의 연령층으로서 중·고등학생과 동년령층의 취업근로자 및 비진학자이다.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의존하고 있다. 본고의 대상지역인 사북읍과 고한읍의 지형은 고산 산악지역이며 교통이 불편한 폐쇄지역이다. 촌락의 형성과정 면에서도 급격하고, 무계획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인구만 많지 도시적 환경과 조건, 기능은 전혀 갖추지 못한 가도시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주민은 대부분 광원이며, 그외에 광원들을 상대로한 상인으로서 전국 팔도에서 모여들어 구성되었고,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가정은 안정되지 못하고 불화가 많다. 탄진공해, 식수문제, 하천오염 등의 불결한 환경에다가 유흥업소는 밀집되어 있고 폭력과 비행이 허다하다. 주민들은 정착의식이 없고 도시에 대한 동경의식이 대단히 강하다. 학교에는 이와같은 지역사회 환경과 주민 구성형태가 그대로 반영되어 탄진공해, 비좁은 운동장, 많은 학생의 도시전출, 폭력과 비행조직, 가출학생, 학업성취의 부진과 동기결핍, 신경질환과 저항의식 등의 현상이 크게 나타난다. 거기에다가 교육정책도 광산지역 같은 벽지지역의 사회문화적 박탈을 보상해 주는 교육정책은 아니기 때문에(1989년까지 교사에 대한 벽지가산점수 0.75를 제외하고는) 이 지역의 학교환경은 이 지역의 낙후성을 보상해 주는데 별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것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생활공간의 일반적 특징

지역사회 자체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장이요 사회화의 장이다. 따라서 광산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발달과 지리적 특징, 산업경제적 특징, 주민의 인구학적 특징, 주민생활 및 문화교육적 특징 등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산촌이란 광물질 채광을 중심으로 형성된 촌락을 말하며 대부분 산간계곡에 위치하고 광부들이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강원도의 주요 광산지역은 태백산 일대에 분포되어 있으며, 사북-고한, 함백, 증산지역, 태백지역(황지, 장성, 철암)이 대표적 탄전지대이다. 강원도의 광산촌은 과거에는 대부분 소규모 화전민 마을이었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1960년대 중반부터 개발이 본격적으로 촉진되어진 지역이다.

1) 교통

태백권의 광산지역은 1967년 정선선 산업철도 개통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1972년에는 국내 최초로 증산-고한간 전철이 시험개통된 바 있다. 태백산맥을 뚫고 동해시 쪽으로 개통된 것은 1974년이였다. 현재 여객 열차는 1일 왕복 7회만 운행될 뿐이다(강릉까지는 1회뿐임). 서울에서 232km(철도) 동남쪽에 떨어진 교통오지로 열차(우등)로 4시간, 버스로 6시간 걸린다. 태백권의 공무원의 95%가 외지에서 단신으로 와 있고, 광업회사 사무원들 역시 거의 외지인들로서 서울, 춘천, 원주 등지의 가정에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주말의 교통량은 폭주한다.

2) 경제

광원의 월급은 이곳 경제를 유지하고 활성화 하는 원동력이다. 1987년 6월 현재 동원탄좌 광원들은 단근(1년에 302일 근무)일 경우 선산부(채탄부:사끼야마)는 45만원, 후산부는 37만원, 간접부는 27만원, 기술자는 47만원 이다. 이 밖에 연 400%의 상여금을 받는데 이러한 소득은 도시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527,600

원, 86년 6월 현재)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물론 상설시장이 있지만, 매월말 광원들의 월급이 나오는 때로부터 3-4일간 특별한 장이 열린다. 이 특별장을 “간조장” 또는 “난전”이라고 한다. 그런데 교통오지인데다가 자체적으로 생필품이 생산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물가가 비싸다는 것도 이곳의 한가지 큰 특징이다. 이곳 유지 중의 한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부르는 것이 금(값)”이다. 집이 춘천인 이곳 교사의 감각에 따르면, “이곳 물가는 강원도에서 가장 비싸다. 농수산물인 경우 춘천에 비하여 30-50% 비싸다.” 이곳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광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떨어지면 “임금 인상 보다 물가안정”이라고 말한다. 이곳의 물가는 지역적 특성, 교통오지, 자체 생산의 불모 등으로 비싼 것이다.

3) 직업조건

탄광업은 위험이 도사리고, 불안하며, 재해가 많은 산업이다. 광원들의 일터인 막장은 지하 1,000-1,700m나 된다. 검은 광원들이 땅속을 헤집고 꿈틀대며 낙반, 붕괴, 가스누출 등의 사고를 당한다. 1986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광산 사고로 인한 사망 167명, 중상 2,648명의 재해가 있었으며, 진폐증 및 규폐증으로 인한 사망이 470명에 이른다. 그러나 보안 대책은 아주 미흡하며, 광산재해의 위험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광원으로서의 노동은 고되고, 작업조건이 열악하며, 직업병이 많이 발생한다.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지열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이 가빠지는 갱속은 폭파 때의 초연과 석탄가루로 인해 이마의 전지 등을 비취도 자기 손이 안보일 정도이다. 방진 마스크가 있긴 해도 숨이

차기 때문에 잘 이용하지 않는다. 하루 6톤의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갱내생활 5년이면 대기진폐증에 걸리고 이환율은 광부 10명당 1명 꼴이다.

4) 인구학적 특징

어떤 지역사회를 이해하려면, 그 지역 주민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이 지역의 원주민은 화전민으로 사북에 5%(사북읍 현황, 1986) 고한에 1%(고한읍 현황, 1986)에 불과하고 95%-99%가 1960년대 이후 전국 각지에서 모여 온 사람들이다. 전국에서 모여들어 살기 때문에 광부 자신들이 “13도 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들은 대부분 한때 소작농이었으나 농촌이 붕괴되자 소작농들이 도시빈민 생활을 하다가 실패하고 이곳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다. 또 5·16 후 국토개발대로 오기도 했다. 5공화국 출범 직후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광산촌 인구는 광업경기에 따라 연간 24% 정도는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주인구의 규모는 이만큼 변화하지 않더라도 항구적 정착인이 적기 때문에 내적인 이동은 항상 크다. 기반 잡은 사람은 나가고, 새 사람이 들어온다. 기반잡기란 광산지역 출신 여대생의 말에 의하면 “서내(시급도시) 나가서 집 한채 사고 자녀 고교 졸업시킬 능력이 갖추어진 상태가 기반잡은 상태이다. 보통 10년 내지 15년 걸린다.” 이런 현실은 특히 고등학교 학생 이동에 잘 나타난다. 고등학교에는 전출학생은 많으나 전입학생은 적다.

최근 광산경기의 침체로 최근에는 인구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에서 1987-88년 1년 사이에 10%의 인구가 줄어

들었다.¹⁾ 이와같은 인구감소는 영세 소규모 광업을 정부에서 정리하고 있는 등 광산경기 침체, 그에 따른 채임, 채벌도 늘어나고, 따라서 상업도 침체하는 등 지역경제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여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침체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북-고한 지역에서 87년까지도 없어서 못구 하던 도로변 점포들이 전세를 놓겠다고 비워두고 있으나 찾는 사람마저 뜸한 점이나, 개천가에 늘 흥청거리던 포장마차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점이다.

5) 사회문화적 특징

이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요약하면 혈연성의 결핍, 지연성의 결핍, 정착의식의 결핍, 한시적 삶(이 지역에서의 삶을 일시적 삶으로 생각함), 생활 주기의 불규칙성, 과밀인구에 저학력, 소비적, 향락적, 주택 및 식수 부족 및 불량, 교육시설 및 조건불량, 폐쇄적이고 외지인에 대해 적대적임, 문화 및 복지시설(체육, 오락, 매스콤 등 미비)의 불량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불리한 환경 하에서도 주민들의 모습에는 진솔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강인한 삶의 의지의 표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문화적 모양에서 이 지역 청소년들은 자라나고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연부락에 나타나는 혈연성과 지연성이 이 지역에는 없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문화적 뿌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즉 지역적 정체의식이 결핍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저 “탄이 나기 때문에”, 이 지

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한 제보자는 이 지역의 주민들을 “삶의 뿌리가 뽑힌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곳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사고 내용은 “일회적인 삶”이다. 따라서 생활패턴은 낭비성향, 한시성으로 특징지워지며, 주민의 이러한 생활은 지역발전을 조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곳 사회단체 중의 하나인 사북청우회는 그 목적 중의 하나로 “내고장 뿌리 내리기”라는 것을 내걸고 있는 것도 이 지역의 이런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교통·통신면에서 폐쇄적 사회이기 때문인지, 외지인에 대한 적대감과 경계심이 큰 편이다.

둘째로, 주택난과 식수난, 탄진문제, 소음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이다. “여자는 없어도 장화는 있어야 한다”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 창문은 거의 닫혀 있으며, 빨래도 밖에 내거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깊이 파야하고(100m 이상), 따라서 비용이 50-100만원이나 들기 때문에 각 가구에서 개별적으로 지하수를 파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사북시내를 돌다 보면 곳곳에 고무호스가 산쪽으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산 속의 식수원(개울)으로부터 식수를 가정으로 운반하는 식수로이다.

셋째로 우리가 만난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 이곳 사람들은 성지식과 위생관념이 결핍되어 있다. 이 곳은 어느 지역 이상으로 부인들의 성질병이 많은 곳이다. 이것은 물론 물사정과 관련이 깊다. 여름철에도 고지대의 여

1) 폐쇄 또는 정리된 탄광의 광원을 위해 정부배려로 은행에서 광원에게 융자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것은 이들 삶의 실상은 모르는 조치이다. 은행 융자란 광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또 이 지역을 떠나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재정보증을 설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성들은 목욕의 횟수가 극히 적다. 여하튼 불결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많은 것이 이곳의 특징이다.

넷째로 사회단체, 복지 및 오락시설 면에서 청소년시설이 전혀 없다. 학교시설물 이외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물이 거의 없다. 한 교사는 “없는 것이 더 많은 곳”이라고 표현한다. 전자오락실은 여러개 있으나, 도서관도 없고, 사설 독서실 조차 별로 없다. 영화관도 없다. 1년에 몇번정도 조그만 가게를 빌려 2-3일간 상영하는 이동영화가 온다. 평상시 영화를 보려면 황지나 제천으로 나가야 한다. 사설학원으로 태권도학원, 주산학원, 피아노학원, 유치원 등이 있다. 동원탄좌가 대통령의 하사금을 받아 운영하는 새마을 도서관이 하나 있으나 30석도 안되는 소규모이고 대체로 단골손님 몇 학생만 나와서 공부한다.

다섯째로 통신 및 대중매체와 오락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라디오와 TV전파는 산맥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난시청 지역이다. KBS 라디오 사북중계소가 있으나 AM방송만 송출된다. FM교육방송은 이용하기 어렵다. TV는 개인 중계소에서 24시간 중계 또는 녹화 중계한다.

여섯째로 무속 및 종교문화는 활발하다. 그것은 삶의 안전을 기구하고 광산재해를 당한 가족들이 후환을 피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가정생활 공간의 일반적 특징

광부들의 주택은 좁은 공간에 일률적으로 건축한 연립주택이 주종을 이루는데, 대개 7-8평

형 스테이트 지붕을한 겹집이다. 방 2개와 현관겸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방과 방 사이에 문이 있으며 방과 주방 사이에도 각각 문이 있다. 부엌겸 현관의 문 밖이 바로 이웃집과의 통로이며 그 폭은 1.6m-2m 밖에 안된다. 보통 4-6호가 한동으로된 연립형 겹집이다. 방과 주방 이외에는 공간이 없다. 공동 수도와 공동 화장실이 요소 요소에 마련되어 있으며 수도는 식수난 때문에 시간제로 공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좁은 공간에서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가 생활해야 한다. 자기 옆방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이웃 집에서 나오는 말소리, 텔레비소리, 카세트 녹음기의 유행가 소리가 다 들린다. 광원들은 약 80% 정도가 사택에 산다. 심한 경우는 6평 관사에 11명이 사는 경우도 있다. 잠은 소위 “칼잠”을 잔다.²⁾ 가족간의 사생활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집에 책상은 없으며 책상을 놓을 면적도 없다. 그러나 전축은 거의 모든 집에 있으며, 웬만한 집에는 비디오도 갖추어져 있다.

광원들의 근무시간은 불규칙성 때문에 생기는 생활상의 특징도 있다. 광산의 채탄작업은 갑반(08:-16:00), 을반(16:-22:00) 병반(22:-08:00)의 1일 3교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광원들의 갑, 을, 병반을 1주일 간격으로 바꾸어 가며 근무한다. 특히 을반을 근무하는 1주일간은 오후 3시에 출근하고 새벽 3시경에 퇴근하여 가정에 돌아올 때는 자녀들은 이미 잠든 뒤이므로 한마디의 대화도 나눌 수 없다. 가정생활의 리듬이 불규칙하고 부모 자녀관계의 일상성이 적다. 또한 광원들의 3교대 근무 때문에 광원들에게 위장병이 많다.

2) “칼잠”은 좁은 공간에서 여러명이 자기 위해 몸을 세워서 자는 잠을 말한다.

가족당 인구가 많고 부모의 학력이 낮다. 평균 가족수는 대체로 5-6명이나 된다. 부모들은 대부분 학력이 낮으며(국졸이 다수), 젊은 부모도 이름을 못쓰는 사례가 아직도 있다. 사북중학교 학부모 5.9%, 사북여자중학교의 학부모 8%가 문맹인데 이는 우리나라 문맹률 2%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소비적, 향락적, 퇴폐적인 경향이 많다. 농촌 보다 훨씬 향락적이다. 나이트 클럽, 카바레, 다방 등이 대단히 많다. 그외의 성인용 여가 시설이라곤 당구장 뿐이다. 또한 음란 Video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입모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놀음도 성행한다. “돈이나 벌자”와 “막장인생”이다. 예의나 체면과는 거리가 멀다. 광산지역 출신 여대생들은 표현하기를 “먹고, 마시고, 자고”하는 생활이라고 한다. 그래서 돈은 많으나(경기는 좋으나) 생활의 질에는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생활습관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즉, 과거에는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생활이었으나, 요즘은 10가구면 5가구는 열심히 저축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머지 5가구 정도는 여전히 쓰기 바쁘고, 이곳에서는 뭐든 월부로 사놓고 이용한다. 월부 인생이며, 매달 월부금 갚기에 바쁘다.

광산사고와 함께, 이와같은 오락문화는 이혼율을 높이고 고아를 탄생시키거나 편부 편모의 자녀를 양산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불량씨름에 가담하거나 가출을 하고 청소년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이 대단히 많은 곳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매를 맞고 어머니가 도망가는 사례가 종종 있다.

따라서 광산지역에서는 가족의 구심체로서의 가정의 역할이 아주 미흡하다. 대부분의 가정

에서는 아버지가 광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3교대 근무) 한달에 절반가량은 서로 얼굴마져 볼 수가 없으며 어머니 역시 맞벌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혹 바랄직하지 못한 일을(도박, 등주, 싸움)하므로 학생들을 가정에서 따뜻하고 친절감을 느끼기 보다는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것 같다.

그러나 광산지역 출신 여대생들에 의하면 “광부들은 유독 자녀 교육열이 강하다”고 말한다. 이곳에서도 학부모들의 강한 기대감으로 해서 극히 일부의 학생들은 부담감을 느끼며 강박관념으로까지 확산된다. 그러나 부모들의 교육열에 대한 이곳 중고교 교사들의 견해는 다르다. 즉 교사들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한다. 그러한 예로 학기초 학부모 간담회에 학부모들의 참석률이 아주 낮으며, 가정 방문을 가도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일이 있어서 학부모님을 오시라고 연락하여도 오시지 않는 등 자녀교육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고3의 경우에도 “3학년초 학부모 회의를 할 때도 20-30명 정도 밖에 안온다”(1학급당 47-8명 짜리 4개 학급을 통털어서). 이곳 신부의 말은 학부모와 교사 간의 다른 견해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것 같다. “부모와 자식간에 대화가 없는 것은 자식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학력이 낮고 가치관이 확실히 서 있지 않음으로 자식과 대화할 소재가 없고 상대가 되지 않는다.” 신부는 이어서 “신자들은 대체로 자식들의 탈선과 이성문제에 대해 많은 상담을 요구해 온다”라고 말한다. 즉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학력이 낮고 가정환경이 나빠 뒷바라지를 못해주고 있다. 즉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높지만 추상적이고 막연한

희망일 뿐이다.

3. 학교생활공간

광산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아정체감의 일부로 지역적 정체감을 언급해야 한다. 부모의 지위상승 욕구로 해서 우수학생의 타지 진출이 현저하고, 학비문제 또는 부모의 관심이 적은 가정의 학생들이 사북에 머물러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가 큰 경우에는 “너만은 이 지역을 떠나라”라고 타이르고 있다. 학생들은 지역적 정체감이 없이 자라고 애교심이 없이 학교에 다닌다.

교육환경과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국민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가정이 괜찮은 학생은 강릉이나 원주 등 외지로 중학교를 진학한다. 중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가정형편이 괜찮은 학생은 다시 강릉이나 원주지역으로 중학 시절에 전학하거나 고교진학을 한다(전출규모가 한 학년에 한 학급이상 된다).

이곳 학생들의 전출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온가족이 타지역으로 전출해 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교육을 위해 자녀만 전출시키는 경우이다. 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은 국민학교 5학년을 마치고 나서나 6학년 2학기 초에 많이 전출을 시킨다. 늦어도 중학교 1학년 2학기까지는 전출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학부모들은 교육열 뿐만아니라,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하고 도시에 자녀를 돌봐 줄 친인척이 있는 학부모들이다. 전출지는 따라서 연고지나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된다.

이와같은 학생의 이촌향도 현상 때문에 따라서 이곳의 고등학교 학력은 저조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사북고등학교의 한 교사의 말에 의

하면, 모의고사를 보면 320점 만점에 210점 이상이 극소수밖에 없으며, 140점대가 대다수로 나타난다. 기초학력의 부족으로 학업에 대한 흥미가 적고 자포자기하는 경향이 있다. 어느 관찰자의 말을 빌리면 이곳 학생들은 “눈뜨면 학교가고, 끝나면 집에간다. 집에가면 술주정 들고, 욕 듣고 하다가 잔다.” 한 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 지역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보통 아이들과 같다. 보충수업 2시간하고, 9시에 하교하고, 8시간 잠잔다.”

가출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이 많고 실제로 가출의 빈도가 높다. 대부분의 학생이 가정문제로 고민을 하고 가출의 문제는 고등학교보다 중학과 국민학교에 더 많다. 국민학교, 중학교의 경우 집단가출이 많다고 한다. 국민학교의 경우에도 가출학생 때문에 경상도나 충북 제천의 파출소에서 전화가 온다. 이런 지역들은 열차나 버스로 2-5시간(제천까지 열차로 2시간) 정도의 거리이다. 가출한 학생들은 허름한 중국 집에서 잡일을 하며 2-3달 보내고 오는 경우도 있다. 고한국교의 경우만 해도 가출로 인해 졸업할 때 내신이 안되어 중학을 진학 못하는 학생이 매년 5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학습부진 학생들의 의욕고취,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적 접촉 기회 확대,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적극적 태도의 육성, 선결과제로서 건전한 지역사회 풍토 등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와 그외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광산지역 학교는 우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문제도 학교가 안고 있다.

광산지역 출신 대학생들은 광산지역에 근무

하는 교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생님들도 학습에 열의가 없고 학생에게 관심이 크지 않다. 1983년에 함백지역 여고를 졸업한 한 대학생은 “교사가 이런 지역의 학생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또 그들은 점수따기 위해 온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북의 한 교사도 “교사들의 의욕이 부족하다. 사북지역 근무를 단지 대도시 진출을 위한 통과 절차로만 생각하므로 학생들과의 유대관계가 긴밀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교사를 불신 마저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교사들의 근무조건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생기는 의욕의 저하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진 상태라고 말하는 교사들이 많다.

사북-고한 지역은 1988년 현재 벽지점수 2급지로서 0.75점이 가산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옛날처럼 오자마자 떠날 생각은 안하지만, 가족을 동반한 정착생활을 하지 않으며, 일요일이면 모두 자기 집으로 가는 생활을 한다. 교사들과 주민들은 별 교섭이 없다. 선생님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상부로부터 주민으로부터의 “정신적 폭력”에 찌든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공간적으로는 함께 살고 있지만,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교사만이 아니라 공무원과 사원 거의 모두가 그렇다. 이 지역에서는 외출하는 곳도 직업과 지위에 따라 대체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 교사들은 하숙 일부하고, 대부분 방만 얻어 쓰고 식사는 매식한다. 교사들의 하숙방은 200cm×180cm로서 두사람이 누우면 벽이 닿는 크기에 지나지 않는다. 선생님들은 이 방을 몽키하우스 *monkey house*라고 부른다.

교사의 근무조건과 생활 조건이 이와 같다면 이곳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교

사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도 안된다.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배려는 교육정책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적인 배려도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금년에 도시지역 교사들의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 벽지점수를 줄였기 때문에 광산지역 같은 곳의 근무 유인체제는 그나마 줄어들어 벽지교육을 황폐화시킬 지도 모른다. 또한 이 지역 교사들 중에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 관해서는 선생님들이 졸업한 뒤에도 이름을 다 기억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갖고 있는 교사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상 광산지역 청소년 생활공간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지역사회 생활공간의 일반적 특징으로는 (1) 고산 산악지역이며, 교통이 불편한 폐쇄지역임, (2) 광산 근로자가 주민의 대다수임, (3) 청소년 문화시설의 부족, (4) 학교 인근에 유흥업소 밀집됨, (5) 폭력과 비행이 많고 청소년 비행을 묵인 내지 방조하는 경향이 있음, (6) 대도시에 대한 동경의식이 강함을 지적할 수 있다.

가정생활공간의 일반적 특징으로는 (1) 대부분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가난함, (2)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고(중졸이하 89%)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학교에 반영하지 못함, (3) 학교 및 교사에 대한 불신 풍조가 만연함, (4) 가정불화와 싸움이 많고 안정되지 못한 가정이 많으며 청소년 가출성향이 높음, (5) 비정상적 결혼이 많고 이혼율도 높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학교생활공간의 일반적 특징으로는 (1) 탄진 공해로 인한 불결한 환경, (2) 교문 및 담장의 미비로 불량 청소년 출입 및 차량통행이 빈번

함, (3) 성적이 좋고 여건이 되는 학생은 도시 지역으로 진출나가고 남은 학생이 대부분임, (4) 기초학력 부족으로 학업에의 흥미도가 저하되고, 자포자기하는 경향이 있음, (5) 연간 진출학생이 매우 많음, (6) 통학 구역별로 알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교사환경의 일반적 특징으로는 (1) 지역사회로부터 이방인으로 남아 있음, (2) 주거문제로 생활이 불안정함, (3)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뀜, (4)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못 느끼고 점수 채워 떠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III. 청소년의 일상생활 및 사회화 과정

다음은 사북-고한 지역 청소년 40여명과외 면접조사에서 얻은 자료에 따라 기술한 것이다.

1. 일상생활 및 사회화 과정

이 지역 청소년의 평일, 주말, 방학동안의 일상생활을 중·고생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중학생은 집에서 등교하는 시간이 대체로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이며, 거의가 도보로 통학한다. 잠자는 시간은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 다양하며, 귀가시간, 노는시간, 숙제하는 시간 등도 아주 다양하여 지배적 경향을 찾기 힘들다. 가정에서의 학습내용은 국영수 위주의 공부이다. 주말은 교회, 인근지역 여행이나 야외산책, TV시청, 숙제 등을 하며 보낸다.

이 중학생들의 집에 있는 교과서 이외의 책은 20권에서 200권까지로 나타났으나 20-30권이라는 반응빈도가 많고, 책종류도 소설과 만

화가 대부분이다. 한달간 용돈은 대부분 만원 이하이며, 3-4천원도 있다. 용돈의 사용처는 학용품 구입과 군것질이 대부분이다. 주로 보는 TV프로그램은 만화, 코메디, 외화, 연속극 순이다. 신문은 문화면을 주로본다. 공부할 때 에로점을 느끼는 청소년이 많고 그 주요 내용은 “부교재 빈약” “환경불량” “심한체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 등이다.

고교년령층은 대체로 집에서 등교하는 시간이 7시 10분에서 7시 30분이 가장 많다. 대부분이 도보로 통학한다. 잠자는 시간은 대부분 밤 12시에서 1시 사이이다. 가정에서의 학습내용에 대해서 응답자의 1/3정도가 무응답 또는 “거의 학습 못한다”로 나타날 만큼 가정에서의 학습을 안하거나 못하는 학생이 많고, 응답자의 2/3정도의 대부분은 “참고서” “영어, 수학”을 주로 공부한다. 숙제는 1/3정도가 없다고 했으며, 다른 1/3정도가 하루 “30분 정도 숙제한다”고 했다.

이 고교생들은 주말에는 “가사돕기”가 가장 많고, “교회가기”와 “공부”가 차례로 나타났다. 방학 동안에는 가사돕기가 1/3정도, 공부가 1/3정도의 반응을 보였다.

이 고교생들의 가정에 있는 교과서 외의 책은 10권에서 100권 정도까지의 반응이 나타났다. 집에서 교과서 이외에 책을 보는 것에 대해 부모가 공부하라고 야단친다는 학생은 하나도 없고, 2/3정도가 긍정적이거나 간섭없다는 반응을 하였고, 1/3이상이 무응답내지 책을 안본다는 반응이다.

이 고교생들의 한달간 용돈은 4천원에서 1만원 사이이며, 5천원-8천원 사이가 대부분이다. 용돈의 사용처는 학용품 구입, 군것질, 잡화, 유희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3

정도의 학생이 필요한 물건을 본인이 직접 사서 쓰고, 1/3정도는 부모나 다른 가족이 사준다. 주로 보는 TV프로그램은 영화, 만화, 드라마, 코메디 등 오락물 순이다. 신문은 문화면을 주로 본다.

이 고교생들은 공부할 때 거의 모든 학생이 애로점을 느끼고 있으며, 소수가 “의지박약”을 지적했고, 나머지 모두가 환경의 열악함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들면 “부교재, 책부족” “학원의 부족” “공부할 장소 부족” “공부안하는 주변 분위기에 휩쓸린다” “부모 원조가 없고 혼자서만 비등대다” “스트레스 해소책이 없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사회화 과정과 내용

1) 자아정체감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자기 안정감을 느끼는 편이다. 다수가 모이는 모임은 고교생 보다는 중학생이 더 즐기는 편이었다. 사회적 감각과 사회성에 있어서는, 중고등학생 모두 주변의 기대를 상당히 지각하고 있는 편이며, 지각 내용은 대부분 직업이나 진학방향으로 주변의 기대를 지각하고 있다. 마음편한 대화 상대자로는 “선배” “친한친구”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 “착한 사람”을 많이 꼽았다.

중학생은 대부분 스스로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고교생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응답자의 반이 넘었다. 자기 주장성은 중학생에게는 뚜렷이 강함을 찾아보기 힘들다, 고교생의 경우는 반 정도가 강한 자기 주장성을 보였다.

나와 남의 모습이 다를 때의 사회적 수용도

는 수용적이기 보다는 열등감을 느끼거나 남에게는 동정심을 느낀다는 반응이 많은 것으로 보아 사람이나 나이차가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거북해 하거나 이상해 하거나 사귀기 힘들다는 반응이 중학생의 대부분이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생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으나 나이차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 성역할 및 성적 발달

중고생 구분없이 성지식을 얻는 매체는 영화와 소설이 중심이고, 성지식을 제공하는 사람은 주로 친구와 선배이다. 성에 관한 대화 내용은 성관계가 가장 많으며 대부분 성적 변화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당황해 한 경험이 있다. 노골적인 성적표사를 한 책이나 사진 비디오를 본 경우는 중학생이 응답자의 반이고 고교생은 거의 전부였다. 성에 대한 느낌은 다양하게 나타나 지배적인 경향을 찾기 힘들다 “추한” “수치”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상당히 있었다.

성역할에 대해서는 중학생은 전원이 남, 여 역할이 “다르다”로 나타났고 고교생에게는 다르다가 대부분이지만 “같거나 동질화 되어 간다”가 30%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

이성교제는 중, 고등학생 대부분이 하고 있다. 이성교제시 신경쓰이는 것으로 중고교생 모두 용모가 제일 많고, 중고생간에 특히 다른 점으로는 고교생이 “학력”과 “타인의 이득”을 많이 지적한 점이다. 혼전 성경험에 대해 고교생의 반응은 반대 2/3, 긍정적 반응이 1/3정도 이었다.

이상적 이성관에 대해서는 중고생 모두 성격, 능력, 미모를 중시하고 있다. 부모와 이성관에 대한 의견일치 여부에 대해서는 중고생

거의 모두가 부모의 의견을 “모른다” “대화가 없다”고 대답하였고, 고교생중 부모 견해를 아는 사람은 모두가 “가정배경” “돈”을 강조하는 것으로 반응했다. 성충동 해결 방법으로는 중학생은 “자제” “운동”으로, 고교생은 “자위” “음주” 등의 반응을 많이 보였다. 알고있는 성지식의 내용은 중, 고생 모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가치관 및 태도

예의범절에 대해서는 부모, 형제, 친형에 경칭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중교생 모두 각각 1/3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 예의범절의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사나 성묘 등의 전통의례에는 거의 다 참여하고 있지만(않는다가 중학생 1명, 고교생 1명 있었음) 그에 대한 느낌에 대한 반응은 “조상숭배 또는 유사반응”은 중학생 1명, 고교생 3명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보아 크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결혼후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 중학생은 모두 “그렇다”는 반응이고 고교생도 대부분 그렇다 이지만, 싫다, 불공평하다, 모르겠다는 반응도 상당수 나타났다.

사회정의의 측면으로,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중학생은 대부분 지켜야 한다고 반응하였지만 고교생은 1/3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학생 데모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이 중학생은 반반씩 나타났고, 고교생은 2/3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교성적의 공평성에 대해 중학생은 모두 공평하다고 반응하고 있으나 고교생은 상당수가 공평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회적 기대와 상벌체제에 관해서는, 청소년

들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기대는 성격, 모범인물, 직업의 형태로 지각하고 있다.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구, 동네 어른들에 의한 상벌체제는 대체로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학생 중에서 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부모가 꾸짖는 경우를 반정도만 있다고 하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더 적다. 동네 어른들은 동네 청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야단치지 못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칭찬 받은 경험보다 야단맞은 경험이 더 많다(특히 고교생에서 심하다). 가장 강력한 동료간의 상벌체제는 폭력씨름에 강하게 나타난다. 경찰은 인력의 부족과 업무의 과다로 청소년 문제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종교생활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이며, 중학생이 더욱 긍정적이다. 그러나 고교생은 대체로 긍정적이면서도 “위선” “세뇌” 등의 부정적 반응이 중학생보다 많다.

4) 사회적 역할과 기술습득

가족관계와 관련된 역할과 기술에 관해 중학생의 반응을 보면 가족과 대화는 있으나(주로 식사시간) 가족활동은 여름휴가때 “야유회” 외에는 거의 없다. 부모 의사는 존중하고 있으며, 자식된 도리는 “효도” “복종” “부모존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교생의 반응을 보면 가족간의 대화가 없다 또는 대화가 안된다는 반응이 반이상이다. 또 가족활동도 없다가 반정도 차지한다. 부모의사 존중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반응은 많으나, “아니다” “조금” “부반응”도 늘어난다. 자식된 도리에 관해 “부모 의사 존중” “순종” 등은 중학생과 같으나 “출세”가 추가되고, 무반응 역시 증가한다.

동료관계에 있어서, 중고등학생 모두 새친구는 친구소개, 학교, 교회, 놀이장소, 떡볶이집, 분식집 등에서 대부분 만나고 사귈다. 중학생 사이에 인기있는 친구는 “잘 웃기고”, “말 잘하고”, “원만”, “활발”, “공부도 잘하고 적극적”, “이해성 높고”의 특징이 있다. 고교생의 경우 표현이 더 깔끔하지만 내용은 유사하다. 말이나 행동 버릇으로는 “욕설”, “코메디 유행어”, “속어” 등이다. 주로 하는 놀이는 중고생 모두 운동이다.

어린애같은 행동으로 지적한 것으로는 중학생은 “생각이 부족한 행동”을 지적하였고, 고교생은 “어리광”, “의식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경우”, “허세”, “고집세고 폐쓰는 행동”, “엄마가 없으면 잘못자는” 행동을 지적하였다.

학교생활에서 씨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중고생 모두 소수이다. 학교 성적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는 반응이 소수(중2, 고1)이었으며, 대부분은 “장래결정” 등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중고생 모두 선생님이 못마땅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 고생 모두 하고싶지만 못하는 일이 2/3 정도가 있다고 반응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주산”, “수영”, “스키”, “기타”, “학원등록” 등이며, 주로 “경제적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다.

사회관계의 측면으로, 사회에서 받고 싶은 대접은 중고생 모두 “학생대접”이 대부분이지만, “어른대접”이라는 반응도 약간 있었으며 그 주요한 이유는 “가고 싶은 곳에 못가니까”(유흥업소 등)였다. 중고생 모두 가장 많이 다니는 대중적 장소는 만화가게(비디오 보기 포함)와 전자오락실이다.

장래직업에 관하여, 중학생은 반이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으나 반은 아직 없다. 고등학생은 직업문제를 생각해 본 사람이 증가하지만, 아직 생각해 보지 않은 학생도 상당수 있다. 나아가 직업을 생각해 본 학생들에게도 직업관은 대체로 막연하며, 구체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 진로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부모, 선생님, 형제이다.

IV. 청소년 현상의 특징

학생 이외의 주민, 교사, 이지역 출신 대학생들로부터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광산지역 청소년 현상의 몇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이 지역 청소년의 행동상의 특징을 물어보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공통적으로 들고 있다. 가정에 대한 불만이 많고 가출성향이 높다. 성범죄가 많다. 동료폭행, 상하급자 폭행, 집단 폭력씨클 등 폭행이 많다. 욕이 반이고 욕이 빠지면 말이 안될 만큼 언행이 거칠다. 돈은 별로 못쓰지만 일단 생기면 오락실, 군것질, 장난감 사기(국교생의 경우)에 거의 모두 써 버린다. 소위 문제 청소년들도 술집이나 다방은 잘 안간다. 왜냐하면, 거칠은 광원들한테 혼나기 때문이라고 주민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눈에 안띄는 비행은 심하다. 예를들면 밤에 매리고 도망가기, 훔치기, 성범죄, 나이어린 학생을 유인하여 비행을 강요하기 등이다.

한 교사는 “부임전 듣던 것보다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메마른 것 같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마도 과거에 근무한 교사들이 이 학교에 있을 때보다 상황이 많이 좋아졌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학생들의 말이 여전히

히 “거칠고 쌍욕이 많다”고 판단한다. 학생들의 의복선택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색다름을 발견하고 있다. 여러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학생들이 “디자인이 특이한 옷” “요란한 색깔의 옷”을 찾는 성향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이 학생들에게 과시욕이 있는 편으로 판단하고 있다. 똑같은 나이키를 신고, 똑같은 옷을 입어도 다른 아이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곳 학생들에게 자기에 관해 선별적으로 얘기하고, 자기를 감추는 경향이 높다. 담임에게도 그런 점을 보이고 있다. 또 아버지가 광원이라는 것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자기방어적이고 타인 특히 외지인에 대한 배타성이 많은 경향이 있다.

도시학생들이 직·간접으로 체험하는 청소년 문화의 매뉴가 전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사북-고한 지역의 일부 학생들은 소외감 내지는 열등감마저 느끼는 경우가 있다(예, TV공개쇼, 라디오 청소년 프로의 참여, FM공개방송 등). 또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공 장소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가정환경 및 사회환경의 불량으로 음성적인 씨클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 지역의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 폭력씨클, 자주가는 장소, 저항성과 신경질환, 중학교 졸업후의 모습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청소년 폭력씨클

광산지역에는 특히 음성적 폭력 씨클이 많다. “깡패집단이 성행해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도 헤를 입기도 해 공부할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반응이 어른과 학생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온다.

고등학교 남자 씨클은 거의 폭력적이고 금품갈취를 하는 씨클이다. 이 씨클들은 이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남자 씨클들로, “은파”와 “낙엽송”이 대표적이다. “은파”는 10년이상된 씨클이다. 회원은 줄어서도 60-70명 정도나 된다. 회원은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인은 거의 씨클 선배회원이다. 회장은 선배이며 사회인이다. 그외에 “십오야”와 “천지”가 있었는데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런 씨클은 내적 결속력이 대단히 강하고 이 결속력을 깨는 경우에는 가혹한 폭력을 행사한다.

여자 씨클로는 “밤안개” “혹장미” “에델바이스” 등이 있다. 여학생의 씨클은 폭력근절에 대한 한 교사의 강한 신념과 의지가 반영되어 1987년 104명이나 자퇴시키는 강력한 힘을 사용하면서 거의 해체시켰다.

이와같은 학생문제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행정에서 학생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곳에서는 학교 전반 업무를 관장하는 교무과나 연구과의 비중보다는 학생생활 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는 학생과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어떤 교사는 이를 “학교행정의 역류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추성환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비행행위에 대한 요인으로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갖는 예측치인 Beta 값을 계산해 본 결과 광산 지역이 0.480, 농촌 지역이 0.433, 중소도시 지역이 0.354로 나타났다. 즉 광산지역에서 비행친구와 접촉빈도가 많은 비행의 원인임을 이 조사연구는 밝혀주고 있다. 사북-고한 지역에서도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행을 더 확산시키고 있음에 틀림없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행친구와

접촉하게 되는가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수집한 단편적이지만 다양한 자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과악은 가능하다. 우선 가정의 문제부터 시작한다. 집에 가기 싫기 때문에 오락실, 만화가게(특히 겨울철 경우)에서 시간 보내기와, 야산과 야외의 집단놀이(여름철 경우)에서 접촉하게 된다. 실제로 “낙엽송”은 낙엽송이 우거진 산에서 집단놀이를 하다가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

한 경찰관의 다음과 같은 분석은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학생들을 자극하는 퇴폐장소는 도시지역에 비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wild하고, 불량씨름을 조직하여 퇴폐행위를 하는 근본문제는 가정생활의 불안정, 미래에 대한 방향설정의 부족, 가치관의 혼란, 기성세대와 청소년의 융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2. 자주가는 장소 : 만화가게 오락실, 떡볶이 집

문화, 오락시설이 절대적으로 결핍된 이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자주가는 곳은 만화가게, 오락실, 떡볶이 집이다. 오락실은 주로 남자들이, 떡볶이 집은 주로 여자들이, 만화가게는 남자가 좀 많기는 하나 남·녀 공히 이용한다. 만화가게의 주인들로부터 수집한 만화가게의 청소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만화가게를 찾는 학생들의 이유에 대해서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학생들의 정서적 욕구 충족의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찾는다. 또 다른 이유로는 집안에서 마음대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나오지만 막상 갈 장소가 없어서 만화가게로 온다.”

둘째로 만화가게에 오는 학생의 부류와 특징에 대해서는 “평범한 학생보다는 가정의 고통이 잦은 집의 학생이나,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미취학 청소년이 많다.”

세째로 학생들이 즐겨 찾는 책의 종류로는 무협지, 애정물(자극적인 책)을 주로 보며 거중에는 기업만화를 보는 부류도 더러 있다. 기업물을 찾는 학생들이 말하는 이유는 사회를 배우고 싶다는 욕망을 기업만화로 채운다고 하며, 고3 남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이 있다.

네째로 만화가게가 겨울철에는 마땅히 갈 장소가 없기 때문에 남여학생들의 이성교제 장소로 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타락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여름철에는 남여교제 장소로 타지역이나 야산이 많이 이용된다. 이 지역에서는 학교 밖의 생활에서 논다면 산으로 야외로 가는 수 밖에 없다.

다섯째로 대부분 학생들은 만화가 스트레스 해소에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더러는 이로 인해서 더욱 혼란스럽다는 학생도 있다. 즉 만화대로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오락실은 남자 청소년에게 크게 애용되고 있다. 고한읍에만 오락실이 15개 정도 있다. 한 교사의 관찰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 초중고 할 것 없이(국1에서 고3까지 공통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오락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오락실은 각종 비행의 온상이기도 하다. 도둑, 여름철인 경우에는 집단 노숙, 가출, 금품갈취, 고학년의 꿈미에 빠지기 등이 오락실에서 많이 발생한다. 떡볶이집은 주로 여학생들이 먹고, 재잘대고, 정보교환 하는 여가선용 장소요, 남녀교제 장소요 스트레스 해소 장소이다. 한 만화가게 주인의 주장처럼 “이 지역에서 만화가게는 여가선용, 정서순화의 장이 되므로

만화가계를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을 지도 모른다.

3. 신경질환 및 저항적이고 드셈

가정의 불안정함은 나아가 청소년들의 신경질환의 원인이라는 증거도 나타나고 있다. 1986년 학생 270명중 신경성 환자가 12명 나왔다. 이곳 여학생들이 괴성을 지르거나 졸도를 잘하는 문제에 대한 교의(校醫) D의원 원장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가정에서 얻은 심리적 불안이나 공포에서 기인한 질환이라는 것이다.

광산촌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반항심이 전반적으로 크다. 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중학생들도 잘 얘기를 안하는 편이다.” 반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에 관해서 담임이 물어도 “몰라요”라고 하면서 답변하기를 계속 피한다. 광산지역 고교를 졸업한 여대생들은 광산촌 학생들의 반항심, 증화현상, 드세기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우선 저항하는 모습을 보면 “새 선생님이 오면 꼭 울려준다. 알아도 대답 안한다.” “학급분위기를 저항적인 아이들이 잡고 있다.” 만약 누가 대답을 하면 쉬는 시간에 저항적 아이들로부터 “왜 잘난 척 하니”라든가 “너만 아니”라고 편잔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담합을 한다. 예를 들어 “오늘은 자자”라고 하면 그시간은 모두가 자는 척하면서 한시간을 보낸다. 또 선생님과 자기들과 나이차를 따져서, 나이차가 적을수록 더 많이 “갈군다.”

이 여대생들은 저항이유에 대해서는 동류의식의 결핍을 크게 들고 있다. 지역간의 위화감과 계층간의 위화감이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한 광산촌에서는 학교성적과

는 관계없이 주거지나 성격등의 유사성에 따른 학생들의 그룹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비교적 학생들이 “드세다” “여학생들의 쉬는 시간 놀이를 관찰하면 제기를 차거나 발타기를 주로 한다. 여학생의 놀이로서 바람직한가의 여부로 교원들간에 논쟁을 벌인 끝에 금지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며칠 뒤에는 되살아난다.” 광산촌의 학생들이 드센 사례를 여대생들은 다음과 같이 들었다(여학교의 경우). 고3학년의 경우 흡연이나 음주는 1반(60명 정도)에서 10여명 내지 15명 정도이다. 물론 1학년은 이보다 약간 적다. 특히 다른 점은 아마도 학급에서의 큰 싸움이다. 학생들끼리의 큰 싸움이 한 학급당 1달에 1번 정도 일어난다. 이때 “큰 싸움”이란 “일대일의 싸움이 아니라 집단 대 집단간의 싸움이며, 말싸움이 아니라, 집단적인 몸싸움을 말한다.” 싸움의 강도도 대단하다. 유리창을 깨고, 의자도 던지고, 아주 간혹 있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칼(연필깎는 도루코 카타-A 칼)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다.

싸운 뒤에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우선 학급 전체적인 후유증으로, 큰 싸움 뒤에는 서로 말하지 않는다. 대체로 이런 상태가 일주일 정도가 계속된다. 이러한 큰 싸움이 발생했을 때 교사의 반응은 전원에게 반성문을 쓰게하고, 아침에 5분간 회개시간을 가진다.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반성문을 쓰라는 지시를 받는데 흔히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를 반복하고, 반성문 내용에는 집안 일이 흔히 언급된다.

4. 중고교 졸업후의 모습

사북중학교의 1986학년도 진학률은 85%로

서, 1985학년도 강원도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 86.8%, 1985학년도 전국 중학교 졸업생의 진학률 92%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편, 이 지역 고등학교의 수용능력 한계성 때문에 광부의 자녀들은 외지의 실업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많이 진학해 가고 있다. 따라서 학업 성적 상위권 학생은 외지의 인문계고등학교로, 성적 하위권 학생들은 외지의 실업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고, 가정이 극빈한 광부나 광부 출신의 가정의 여학생들은 서울 부산 등지의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로 취업겸 진학해 가게 된다.

사북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률(1986 학년도)은 19.9%로서 1985학년도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률 53.8%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고교졸업후의 모습을 보자. 1980년 사북 사태이후 광원자녀 학비지원이 국립은 100%, 사립은 80%까지 되고 있으나 성적불량으로 진학에 성공하는 사람이 적다. 고3 중간쯤 되면 학생들에게 심리적 갈등이 대단히 심각하게 나타난다. 진학자와 비진학자, 그리고 비진학자들 중에도 취업이 될까 아니면 집에서 빈둥거리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비로소 심각해 진다. 비진학 졸업생들은 졸업후 대부분이 이 지역을 떠난다고 한다. 첫째 이유는 군입대 때문이고, 둘째는 취업 때문이다. 이 지역에는 졸업생을 수용할 업체나 조직체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군미필자는 광원으로 취직요건이 안되고, 조그만 개인 기업체에 사원 겸 경리로서 불과 몇명 밖에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 강원은행이나 읍사무소 등의 기관은 경쟁시험을 치루는데 이곳 졸업생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드물다.

V. 종합 및 제언

종합적으로 해석한다면, 광산지역의 청소년들은 이와같은 지역사회 환경중에서도 우선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며, 이 문제점을 사회에서도 해소하거나 풀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해소하거나 풀지 못하고 있다. 가정의 문제가 청소년자녀의 문제로, 나아가 사회의 문제로 학교의 문제로 파급되어 가는 방사선형 파급 모습을 연구자는 생각한다. 그러나 가정의 문제를 교정하고 수정하고 개선해 줄 수 있는 사회환경과 학교환경이 되어주질 못하고 그것을 반영만 하고 있는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 그리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이 지역 청소년 현상의 제반 특징들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여러현상들(대부분 부정적인) 외에 간과되어서는 안될 현상을 지적해 두어야겠다. 이 지역 청소년은 사회적 조건이 청소년에게 전반적으로 지적, 성취의욕적 자극의 결핍현상이 나타나게 하며, 본받아야 할 모델이 주변에 없으므로, 욕구불만을 많지만 그 불만을 승화시킬 방법을 모르며, 방법을 터득한 소수(예컨대 공부하여 성공하자)에게도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지역의 사회적 조건에 의해 조성된 청소년 현상이다. 광산지역은 대부분 청소년의 생활환경인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의 세측면 모두 문화적으로 박탈된 곳이다.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덜 박탈된 곳이 이 지역의 학교환경이며, 가장 많이 박탈된 곳은 가정환경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청소년 사회화문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제안을 몇가지만 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환경과 학교교육환경의 문제는 가정환경의 박탈을 보상해 준다는 보상적 제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필자는 제시한다.

불가피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탄광합리화 정책으로 광산지역은 인구도 줄고 경기도 침체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수만의 주민이 살고있는 광산촌락 자체가 없어져야 되겠는가 또 다른 문제이다. 여전히 무연탄광업은 유지되어야 하며(영세탄광은 정리하더라도)적정 규모의 인구가 남아 이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안락하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의 여전이 구비되는 지역으로 가꾸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주민이 정착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것이 이 지역의 청소년 대책의 기본방향이다. 이러한 사업은 능률의 차원이 아니라 평등의 차원, 국토균형개발의 차원, 복지적 차원, 분배정의의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도로망의 개설은 산악지역의 균형개발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교통난, 폐쇄성, 물가고를 상당히 해결해 줄 것이다. 지역내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예전대 농공단지 건설사업과 기술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탄진, 식수, 소음 등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연구자는 무엇보다도 주택개량사업을 우선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택개량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는 청소년의 환경 중에서 가정환경이 가장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정은 사회의 기반이요 청소년의 모판이다. 이곳의 청소년들의 탈선과 좌절과 저항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 진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 자체가 이 지역에서는 큰 문제이다. 부모들에게도 사생활

이 보호되고, 이웃집 어른도 사생활이 보호되고, 청소년도 불필요하고 비교육적인 환경에의 노출로부터 보호되고 또 청소년의 사생활도 보장되어야 하고, 가정에서 최소한의 청소년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주택으로 개량되어야 한다. 나아가 불안정한 가정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심각히 생각해야 할 시기이요 지역이다. 국가는 그들에게, 특히 부녀자와 청소년에게, 할 일을 주고 생각할 일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떤 형태이든 공익사업을 통하여, 예전대, 성인교육사업, 부업알선사업 등, 가정을 건전하고 튼튼하게 만드는데 국가와 공공단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청소년 문화가 결핍되어 많은 학생들이 소외감 내지는 열등감 마저 느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TV, 라디오 공개 프로그램을 이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의 공공시설 사업과 문화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씨름활동 등의 범위를 넓혀 광산지역 학생들과 많은 교류를 갖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광산지역의 학교교육환경은 가정과 사회의 상대적 박탈상태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 차별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이 지역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 관사를 마련해 주는 일은 화급한 일이다. 학교도서관이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교사의 특별배치는 학생들의 고민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지역출신 교사를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 지역 출신 교사들은 주거

문제가 보다 쉽게 해결될 것이고, 이 지역사회 환경을 빨리 이해하고 적용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 지역사회 학생을 잘 이해하고 애정을 가질 것이다. 또한 외지에서 온 교사가 주민들과는 접촉이 없이 지내는데 이런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사와 학생, 주민 사이에는 상당한 불신이 있으며, 이 불신은 도시지역의 불신과는 다른 것 같다. 이 불신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연구자가 받은 느낌은 이곳에서 새로 부임한 교사들 1-1.5년 노력하다가 포기하는 것 같다.

이 학교에서 학생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지도가 불가능하므로 지역사회의 인사들과 연계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 인사들이 후한이 두려워 방관하고 청소년 선도에 대한 의지가 없고, 관련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후한이 두려워 경찰에 잘 알려지도 않는다.” “대세 때문에 바론말 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당한다.” 자동차에 손상입히거나 사모님 해끼치기, 집에 들던지기 등의 보복

이 뒤따르기 때문에 교사도 제대로 지도하기 어렵다. 한 교사에 따르면 “사회정화위원회, 읍사무소, 파출소 지소도 있지만 문제 청소년을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 오직 학교만 노력할 뿐이지만 아무 효과가 없다. 청소년들도 파출소 끌려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경찰은 몇안되는 인원으로 어른 문제 다루기도 바쁘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 곳 교사들은 경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경찰은 용서해 줄려고 하는데 학교가 용서하지 않으려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가 여기에서는 통한다”는 불평을 한다. 이와 같이 외부와 연관된 사건은 학교가 여지없이 당한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한다고 교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 전담 경찰관 배치, 청소년 상담교사 배치, 지역사회 청소년위원회 등을 조직하고 상급기관에서 행정지도와 후원을 해야 할 것이다.